##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보편·균형적으로 바라보는 공간이 되길

노자 도덕경의 무위(無爲)를 떠올려봅니다.

爲者敗之 執者失之, 去甚 去奢 去泰(위자패지 집자실지, 거심 거사 거태). '성인은 억지로 하면 실패할 것이고 집착하면 잃는다, 극단적이고 사치스럽고 교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정상화된 지금, 앞으로의 나아갈 길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균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둘째, 과거 민주화운동의 헌신과 정신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만 연연하지는 않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을 그리면서 현재의 민주주의 과제, 경제 양극화의 문제, 생활 민주주의, 생태·환경 문제 등도 민주주의 담론으로 담아보려 합니다.

셋째, 한국의 미래는 한반도 통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적 대결을 넘어 국민통합을 지향하면서 장기적인 남북통일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역할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창간하는 기관지 『민주누리』는 이전의 기관지인 『희망세상』, 『시민교육』, 『계간 민주』를 기반으로 발간합니다.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보편적이면서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벌써 28년째를 맞이합니다. '독재타도 민주쟁취'의 구호 하에 전 국민이 참여했던 6월항쟁의 함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저는 당시 외국에 있었지만 마음은 국내에 계신 분들과 함께였습니다. 『민주누리』 창간호의 특집은 6월항쟁을 의미하는 '610'으로 정했습니다. 특집대담을 해주신 장기표 선생님을 비롯하여 귀한 옥고를 기탁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노자의 말처럼 억지도 아니고 집착하지도 않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하는' 정진의 자세를 『민주누리』 발간 정신으로 삼고자 합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을 앙망하며 창간에 애써 주신 기획위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주누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박 상 증